

## ‘광장에 선 여성’과 말할 권리

: 1980년대 고정희의 글쓰기에 나타난 ‘젠더’와 ‘정치’

김정은\*

### 차례

1. 두 번의 장례식, 그리고 또 하나의 ‘사각’
2. 남성중심적 비평 풍토에 대한 비판과 젠더체계의 교란
3. ‘민주주의’에 대한 반복된 복종과 ‘소주파’여성의 주체화 전략
4. 역사적 주체로서 ‘여성’과 ‘여성’의 ‘시민화’
5. 결론을 대신하여 : ‘여성’과 ‘주권’을 둘러싼 혼동 내지 전략 사이

### 〈국문초록〉

1980년대 문학과 사회운동에 있어 ‘광장에 선 여성’의 형상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1980년대 사회운동 내지 문학장 안에서 ‘젠더와 정치’가 가진 복잡한 의미를 고정희 시인의 활동과 글쓰기를 통해 밝혀보고자 시도한다. 고정희는 등단 과정에서 그리고 시인이 된 이후에도 ‘여성성’의 이데올로기, 문학장 안에서 ‘여류’에 대한 기대 지평에 부딪혀야 했다. 고정희는 이러한 편견 속에서도 소위 사회성이 강한 ‘정치시’를 썼는데 이러한 여성 시인의 모습은 문학장에서 공고한 이분법적 젠더 체계를 교란하는 것이기도 했다.

고정희는 당대 한국 사회를 ‘말의 위기’로 의미화하며 발화의 권력이 되지 못했던 ‘민중’에게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누가 공화국의 시민인지에 대해 심문하며 민중의 목소리를 재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중의 ‘편’에 서서 시를 써야한다는 대의를 따르는 것 이상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효과 역시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발화를 추상적 개인으로도 존재하지 못하는 여성 시인이 한다는 것은 ‘광장’의 영역을 누가 독점해왔는지를 문제시하며 민중뿐만 아니라 여성 역시 공화국의 시민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고정희가 단순히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이 갖는 차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무엇보다 ‘시민’이 되는 것이 여성의 개인성을 인정받는 유용한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고정희가 지녔던 여성의 주체화 전략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여성이 사회의식을 지니는 것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은 ‘여성과 주권’을 둘러싼 혼동 내지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혼동 내지 전략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조건과 맥락을 탐구하며 페미니스트로서 고정희의 역설적 위상과 자리에 대해서 규명해보고자 했다.

핵심어 : 고정희, 여성성의 이데올로기, 광장에 선 여성, 여성의 인간화, 크리스찬 아카데미, 젠더와 정치

## 1. 두 번의 장례식, 그리고 또 하나의 ‘사각’

고정희(1948~1991)<sup>1)</sup>는 1980년대 문학과 이와 관련된 사회운동과 지

1) 본명 고성애. 1948년 전남 해남에서 5남 3녀의 장녀로 태어나 국민 학교 졸업 이후 독학으로 공부하였고 『월남 해남』 기사를 거쳐 광주YWCA간사를 지냈다. 1975년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해 민중신학의 세례를 받기도 했다. 김준태, 송수권 등과 함께 광주를 중심으로 ‘목요시’ 동인 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로 여성문학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1984년 ‘또 하나의 문화’ 동인 활동을 통해 ‘여성해방문학’에 대한 담론을 개진하고 시적 실천을 도모했으며, 1988년 『여성신문』의 초대 주관을 맡기도 했다. ‘광주’와 관련한 시적 작업을 꾸준히 행했으며, 1990년 필리핀 마닐라에 체류하며 ‘탈식민지 시와 음악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했다. 불운한 죽음으로 더 유명해졌는데, 1991년 6월 지리산 뱀사골에서 실족사하

성계의 움직임은 맥락화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인물이다. 고정희의 삶과 시세계가 함축하고 있는 '민중주의' '여성주의' '민중신학' '또 하나의 문화'와 관련한 맥락은 그 각각이 탐구 주체가 되는 동시에 1980년대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준거점이 되기에 이에 대한 탐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고정희의 삶과 문학에 대한 탐구를 통해 1980년대 사회운동과 문학장 안에서 '젠더와 정치'가 가진 복잡한 의미를 '낭만적 투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성'이 문학장 안팎에서 가지는 저항적 위상에 주목해 드러내고자 한다.

고정희는 소위 민중주의와 여성주의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지향을 함께 추구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글쓰기에도 그러한 지향이 반영되어 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2)</sup> 그리고 충돌, 긴장할 수밖에 없는 두 지향을 고정희가 동시에 추구한 인물이었다는 점은 그의 죽음을 둘러싼 풍경과 움직임이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고정희는 1991년 지리산 뱀사골에 등반하던 중 실족하여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 고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풍경은 1980년대라는 시기가 일종의 '분화'의 상태이기도 했다는 것, 사회를 변혁하려는 움직임이 '민중운동'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그 안팎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정희의 죽음을 둘러싼 반응은 크게 민중주의 진영과 여성주의 진영이 그 죽음과 삶을 서로 상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고정희의 장례식은 두 번 이루어졌다. '민족문학인 葬'으로 1991년 6월 11일 이루어진 남성 문인친구들이 중심이 되어 그녀의 죽음을 기린 의례가 하나이며, '고정희를 보내고, 부르는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1991년 6월 15일 또 하나의 문화 동인을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 진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례가 다른 하나이다. 후자의 의례는

---

었다.

2) 이소희, 『고정희 글쓰기에 나타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 연구 : 80년대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영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221~318쪽.

전자의 의례에서 고정희가 민족남성의 ‘누이’로 호명되는 것, 고정희의 여성주의적 지향이 삭제되는 것에 반발하여 이루어진 움직임에 해당했다.<sup>3)</sup>

고정희는 ‘민중운동’과 ‘여성운동’의 접점에 섰던 인물로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그녀의 삶과 활동을 의미화하려는 노력이 일찍이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고정희의 문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든데 정작 그 문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소외를 경험한 것이 아닌가 한다. 김양선은 고정희의 시가 당대 문학비평의 장에서 “충분히, 그리고 공적으로 말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시종일관 민중적 관점을 견지했지만 동시에 여성의 시각에서 사회와 역사의 문제를 시적으로 형상화했던 그의 시는 ‘민족’ 중심, ‘노동계급’ 중심의 당시 지배적인 평단에서 해석의 그물망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sup>4)</sup> 한편 고정희의 민중주의에 정향되어 있는 투쟁적 면모는 고정희의 페미니즘적인 성격에 주목하는 시각들에 의해서도 그것이 지나치게 ‘남성적 투쟁’의 방식을 상기시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고정희가 등단 이전부터 문학활동에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성을 강요하는 남성 문인들의 성차별적인 편견에 시달렸으며, 여성은 사회와 역사의 문제를 말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대결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고정희가 ‘여성시인’으로서 억압적 정치 현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시들을 썼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와 역사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주로 남성의 일로 치부된 사실을 고려하면 기존의 지배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를 쓰는 일은 기존의 젠더 체계에서 비롯된 ‘여성성’의 이데올로기와 대결하는 일이 되기도 했다. 페미니즘적 관점을 지닌 연구들이 고정희의 이러한

3) 이러한 ‘분화’의 풍경은 또 하나의 문화가 고정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고정희를 그리며’특집에 실린 김은실의 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김은실, 『고정희 선생님이 죽었다?』, 또 하나의 문화 편,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쓰기』(또 하나의 문화 9),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2, 100~113쪽.

4) 김양선, 『486세대 여성의 고정희 문학 체험』, 『비교한국학』 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44쪽.

면모에 덜 주목했던 것은 고정희가 가담하기도 했던 민중운동이 남성적이었다는 인식과 함께 이러한 민중운동이 여성의 문제를 부차화했다는 비판적인 인식 속에서 이것과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또 하나의 문화’와 같은 대안적 여성운동과 결부되어 있었던 고정희의 페미니즘 시에 선차적으로 주목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여성운동에 대해 사회와 역사의식을 지닐 것을,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와 결부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진보 남성들에 대한 반감이 고정희의 민중주의적 면모를 관호에 넣는 연구 경향을 낳았으며, 민중운동 진영과 함께 호흡했던 고정희의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지연시켰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고정희의 민중주의적인 면모, 조한혜정식 구분법에 따르면 ‘소주파’였던 여성이 지녔던 의미를 오히려 되물어야만 1980년대 사회운동과 문학장 안팎에서 ‘젠더와 정치’가 가진 복잡한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sup>5)</sup> 이는 무엇을 해체했고 무엇을 해체하지 않았는가의 문제이기도 했을 것이다. ‘광장에 선 여성’(‘문학장’안에서 ‘여류답지 못한

5) 조한혜정은 ‘소주파’‘백주파’라는 조어를 여러 글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조어법은 기존의 변혁운동에 대한 지원 여부를 술을 마시는 취향의 다름, 일종의 감성의 차이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구분법이다. “우리 반은 데모를 하는 친구와 안 하는 친구로 나뉘었고, 데모하는 친구들은 소주를 마시며 논쟁을 하는 친구들이었고 나는 통기타를 치던 다른 류의 동기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소주파’와 ‘백주파’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였지요. 지금 보면 그 두 집단은 이념만이 아니라 감성이 다른 집단이었습니다.” 조한혜정, 『두 번째 편지-선택할 수 없는 조국, 그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조한혜정·우에노 치즈코, 『경계에서 말한다』, 사사키 노리코·김찬호 역, 생각의 나무, 2004, 104쪽. 하지만 이념적 지향과 감성의 문제가 곧바로 등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듯하다. 조한혜정은 또 다른 글에서 시인 고정희를 ‘소주파’라고 규정하고 이어지는 진술에서 그러한 ‘소주파’라는 규정으로 소급될 수 없는 고정희의 다른 취향에 대해서 언급한다. “‘민중’이라면 무조건적 애정이 솟는 듯한 그가 오히려 ‘귀족적’인 취미-귀족적인 취미라야 별것은 아니다. 이쁜 장식품을 좋아하고 ‘고상하고 부티’나는 듯한 가구를 고르며 값비싼 옷을 하나쯤은 갖고 있고 가끔은 비싼 레스토랑에도 가는 그런 따위이지만-를 한구석 어딘가에 갖고 있는 것이 일관성 없어 보이면서도 ‘인간적’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조한혜정, 『시인 고정희를 보내며……』,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여성해방문학가 고정희의 삶과 글』,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1993, 232~233쪽.

여류’)은 ‘여성’에 대한 상징체계에는 도전할 수 있었지만 민족과 민주, 민중이라는 ‘대의’를 해체시키는 단계에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여성’의 ‘힘’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향을 꾀했는데 고정희에게 그것은 역사적 주체가 되는 길, 여성의 ‘인간화’였으며 시작(詩作)에서도 이를 반향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고정희가 ‘역사’와 ‘일상’의 이항대립, ‘역사’가 주로 ‘남성’의 영역에 ‘일상’이 주로 ‘여성’의 영역으로 할당되는 체계를 교란하는 ‘정치시’를 썼다는 것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고정희의 이러한 면모를 조명해보는 것은 1990년대 이후 구축된 여성문학이 공사이분법적 단절론에 기반하여 일상의 영역을 중시하며 여성문학을 협소하게 규정해 온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6)</sup>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선 고정희가 사회성이 강한 시를 쓰는 것으로 인해 남성 문인들이 여성의 글쓰기에 대해 가진 편견에 시달렸음을 살펴보고 이러한 편견과 갈등을 일으킨 면모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남성적 투쟁의 방식을 상기시키는 고정희의 ‘정치시’가 가지는 함의, 그리고 이러한 고정희의 민중주의적 면모에 대해 단순히 기존의 민중주의를 답습했다는 단순한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여성의 주체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복합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고정희가 역사적 주체로서 주로 ‘시민’의 형상으로 여성을 재현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정희가 왜 ‘광장에 선 여성’의 형상으로 여성의 ‘인간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를 제약한 조건과 그것이 가리키는 바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6) 여성문학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여성성’과 크게 충돌하지 않으며 젠더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측면 역시 있기 때문이다. 이선옥 역시 1980년대 여성문학을 재해석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인의 일상과 섹슈얼리티 재현에 중심을 둔 1990년대 여성문학의 성장 이후 이 시기의 여성문학에 대한 해설은 소홀”해져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9쪽.

## 2. 남성중심적 비평 풍토에 대한 비판과 젠더 체계의 교란

고정희는 습작기부터 자신의 시 스타일과 관련하여 남성 문학인들로부터 ‘여성성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편견에 지속적으로 부딪혀왔음을 자신의 문학관을 표명하는 글에서 진술한 바 있다. ‘중앙 문단’에서 활동하기 이전 목표를 중심으로 한 <흑조(黑潮)>동인에 1969년에 발간된 4집부터 참여하게 된 고정희는 동인 중 하나였던 김창완으로부터 “<흑조> 동인이 서정성을 바탕으로 한 동질의 시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데 반해 고정희씨는 너무 사회성이 강한 시를 쓰고 있으므로 이는 흑조의 방향에 불협화음이 아니냐”는 내용의 비판을 듣게 된다.<sup>7)</sup> 물론 고정희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표면적으로는 문학(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지점을 함의하고 있는데, 사회성이 강한 시를 쓴다는 문제는 ‘여성’이라는 젠더를 특별히 문제삼아 고정희에게 자주 제기되는 비판이었다는 것을 이어지는 일화들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장 안에서 사회성이 강한 시를 여성이 쓰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고정희가 중앙 문단에 등장하게 된 과정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정희는 1970년 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하게 되는데 “선이 너무 남성적이고 툰이 거칠은 데다가 이름이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의 장난이 아닌가 하여” 당선이 보류되었던 것이다. 이는 후일 『현대시학』에 고정희를 추천하여 중앙 문단에 활동할 수 있도록 관여한 시인 박남수로부터 고정희가 전해들은 것이었다. 고정희는 등단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습작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평가를 선배들로부터 받으며 혼란을 겪은 것처럼 보이는데, 『폭풍전야』라는 작품이 1974년 7회 영남대학교 문학상에 당선작으로 뽑히게 되면서 박두진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뒤에야 비로소 이러한 시비에 휘둘리지 않고 거리감을 둘 수 있게 되었다

7) 고정희, 『내 삶의 기저로서의 문학』,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문학과지성사, 1983, 64쪽.

고 밝히고 있다.

이때 전자였던 박두진 선생의 아낌 없는 칭찬이 내게는 내 문학에 대한 어떤 확신의 실마리가 되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누이 선배들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고독하게 고수해 온 문학적 에너지, 즉 여자 작품이 너무 강하다느니 너무 사회성이 강하다느니 좀 부드러운 이미지 쪽으로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등의 충고(?)에 대한 회답처럼 느껴졌다.**<sup>8)</sup> [강조는 인용자]

고정희는 자신이 초창기부터 고수해온 문학적 에너지에 대해 “너무 사회성이 강하다느니 좀 부드러운 이미지 쪽으로 보완되어야” 된다는 편견 내지 충고에 지속적으로 직면했던 것이다. 동료였던 남성 동인들이나 선배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고정희는 문학상 심사를 보거나 문예지에 추천을 행할 수 있는 기성의 보다 권위있는 남성 문인-박두진, 박남수-로부터 인정을 받은 뒤에야 이러한 비판이나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서술한 일화들은 문학장 안팎에서 여성이 쓴 문학에 대해 일종의 젠더체계에 기반한 고정관념, ‘여성성’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케 해준다. 이 때 젠더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주목해서 보면 어조에 있어 부드럽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사회성’이 강했다는 것이 시비의 주된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은 은연중에 여성이 쓴 문학이 여성적일 것을 강요하고 기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때 ‘여성성’으로 할당될 수 없는 것에 ‘사회성’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은 젠더와 정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성’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여성 작가에 대한 편견은 고정희가 시집을 낸 기성의 시인이 되어서도 부딪혀야 했던 것이다. 고정희

---

8) 앞의 글, 65쪽.



의 첫 시집 『누가 술틀을 밟고 있는가』(배재서관, 1979)를 출간할 때 벌어진 사례가 이를 웅변해 보여준다. 박혜란이 고정희를 회고하며 쓴 글에서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밝히고 있는데, 시집 제목에 있는 ‘술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틀’로 바꿔 말하거나 썼다는 것이다.

첫 시집의 제목에 대해 고정희는 재미있는, 동시에 의미 있는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술틀’이란 단어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틀’로 바꿔서 말하거나, 쓴다는 것입니다. 작가 자신이 아무리 술틀이라고 고쳐 말해도 활자화된 것은 거의 어김없이 수틀로 나오곤 했으며, 바로 그것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반영이 아니겠느냐며 그는 화도 안 내고 말하였습니다.<sup>9)</sup>

고정희는 박혜란에게 “그것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반영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으며 이러한 여성 작가를 바라볼 때 작동하는 고정관념인 ‘여성성의 이데올로기’를 일찍이 부당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고정희는 이러한 편견에 부딪히며 문학장 안에서 여성 문인들이 ‘예술적 시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체험에서 비롯된 여성 작가를 ‘여성성의 이데올로기’에 가뒤편의 편견의 강고함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정희가 특별히 ‘여성문학’에 대한 최초의 사적(史的) 접근을 한 계기로도 작용했을 것이다. 고정희는 『한국 여성문학의 흐름』이라는 글에서 남성중심적 비평 풍토로 인해 여성 작가가 겪게 되는 특별한 어려움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1986년에 발행된 또 하나의 문화의 두 번째 동인지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에 발표된 이 글은 여성해방주의적 관점에서 기유의 문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여성 작가들에 대한 남성 문인들의 논의에 대한 일종의 메타비평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고정희는 소위 김윤식의 ‘여

9) 박혜란, 『토약질하듯 어루만지듯 가슴으로 읽은 고정희』, 또 하나의 문화 편, 『여자도 말하기, 몸으로 쓰기』(또 하나의 문화 9),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2, 58쪽.

류문학'에 대한 세대론적 접근 혹은 분류를 승인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평가에 있어 남성 문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차별적인 비평 풍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 문인들에 의해 행해진 1930년대 '여류문학' 제2기의 여성 작가들에 대한 언급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 주요 메타비평의 대상이 되는 글은 김윤식이 1960년대 후반 발표한 글이다.<sup>10)</sup>

고정희에 따르면 김윤식은 김문집이 박화성을 규정한 '여성성 소실 혹은 여성성 기피'라는 표현을 수용하여 이를 강경애에게도 적용하며 “여성다운 여류라면 최정희의 고백체밖에 없”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고정희가 볼 때 이러한 규정은 매우 문제적인 것이었다.<sup>11)</sup> 고정희는 이러한 진술들이 여성성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여성 작가들을 평가하는 남성비평가들의 성차별적 태도에서 비롯됨을 간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두 여성 작가 중 박화성을 일컬어 김문집은 **'여성성 소실 혹은 여성성 기피'라는 흥미로운 표현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 점을 수용하여 김윤식은 '이는 강경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며 여류다운 여류라면 최정희의 고백체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아리송한 비평을 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강경애는 후대의 평을 받기 전에 1943년 작고하였고 **박화성의 그러한 탈 여류적 작품 경향은 남성들의 남성 위주 비평에 의해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후대 다른 여성 작가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진정한 여성에 의한 '여류 문학'을 '여류**

10) 김윤식, 『女性和文學』, 『아시아여성연구』 7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1968, 95~128쪽.

11) 김윤식의 원글에서는 “여성다운 여류라면 최정희의 고백체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진술되었다. 위의 글, 112쪽. 고정희는 김윤식의 이 말을 ‘여류다운 여류라면 최정희의 고백체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여 직접인용 과정에서 “여성다운 여류”를 “여류다운 여류”로 오기하긴 했다. 고정희, 『한국 여성 문학의 흐름』, 또 하나의 문화 편,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또 하나의 문화 2), 평민사, 1986, 107쪽.

**특유의 섬세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은 또한 역사성 혹은 사상성이 부재한 것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사회 인식의 깊이를 갖춘 작품에는 ‘여성성의 소실’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이에 ‘여성다운 여류’라는 프리미엄을 안겨 주는 실로 성차별적인 비평 풍토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sup>12)</sup>  
[강조는 인용자]

고정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성성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남성 중심적 비평이 여성 작가의 창작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여성 작가에서 ‘여성성’여류성’을 갖대로 한 평가가 내려지고 이것을 성취한 작가들이 이것을 벗어난 여성 작가들에 비해 고평되었던 것은 여성을 여성성에 가둬보는 것이며 여성을 문화적으로 식민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비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여성다운 여류’에게 일종의 프리미엄을 안겨 주는 실로 성차별적인 비평 풍토”는 여성 작가들의 창작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고정희의 진단이다.

“여성 문학은 진정한 여성 문화 양식을 형성시켜 나가는 데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과제 중 ‘비평적 과제’가 첫 번째로 놓인다는 것은 ‘여성 문학’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어 왔고 그러한 편견이 여성의 진정한 자기 표현과 자기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고정희가 심각하게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신문학 70년사를 포함한 한국 문학 전유산을 계열별로 검토하고 여성 문화적 시각에서 이를 재해석하”기 위해 “여성들의 비평계의 진출이 급선무”라는 논의를 펼쳤던 것이다.

여성 작가에 대한 이러한 상징적 폭력이 문학장 안에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던 실정 속에서 고정희가 ‘정치시’를 썼다는 것은 이러한 지점에서 문제적이며 주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성다운 여

---

12) 고정희, 위의 글, 107~108쪽.

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남성적 어조로 시를 쓰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이 강한 시를 쓴다는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글에서 고정희는 “사회 인식의 깊이를 갖춘 작품에는 ‘여성성의 소실’이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비평사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시에 대한 남성 문인 혹은 동료들의 평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고정희의 시에 대한 평가 중 사회 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성차별적 언설이나 인식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그 심층에는 여성답지 못하다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남성성’으로 할당된 영역을 고정희가 침범했다는 반응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성’이 당대 사회에 대한 발언, 즉 ‘공동체’에 대한 공적 발화의 성격을 지닌다고 했을 때, 그러한 공적인 영역의 활동 주체가 주로 ‘남성’이라 보는 것이며 ‘여성’에게는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억압적 인식을 그 기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여성’을 특수한 자리로 ‘남성’을 보편의 영역으로 상정함으로써 작동하는 문학장 안에서의 젠더 체계는, 즉 여성 작가를 계속해서 특수하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작가의 예술적 시민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또 하나의 차별적인 인식 체계와 배제에 다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성’이라는 것의 구축과 성차가 배제의 원인이 아니라 효과라는 조안 스콧의 논의는 문학장 안에서 작동한 젠더 체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하나의 참조점을 제공한다. 조안 스콧은 ‘여성성’의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남성’의 주체로서의 지위 성립을 위해 필수적이었음을 논급한 바 있다.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남성성이 의미화되는 것은 단순히 페니스의 소유와 부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다. 남성성은 (시공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군인, 재산소유자, 과학자, 시민이라는 지위들에 의해 의미화된다. 그러한 지위들로부터 여성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거기에 여성

이 포함되면 생물학적 섹스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상징적 위치에 대한 주체의 동일시가 같은 것이 아님을 인식시키기 때문이다.”<sup>13)</sup>

조안 스콧은 남성을 대리보충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타자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의 '보편성'이라는 자리는 '여성'이라는 타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여성'을 '여성성'에 가둬두는 문화적 지배를 통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성'의 이데올로기는 공적 영역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된 것이며 이는 '여성'의 자아를 축소하는 효과를 낳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안 스콧의 통찰을 고려하면 고정희가 사회성이 강한 시를 썼음은 단순히 지배적인 남성의 언어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며 보다 복합적인 의미망을 지닌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고정희가 사회성이 강한 시를 쓰는 것은 단순히 당대의 폭압적인 지배권력만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성 작가를 '여성성'에 가둬보는 협애화된 시각과 문학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에서도 작동하는 여성에 대한 상징적 폭력에 대결하는 일이 되기도 했다. 고정희는 여성 작가를 여성성에 가둬보는 것을 비판하며 창조 에너지에는 여성과 남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역설했으며<sup>14)</sup>, '여성성'을 수행함으로써 '여성다운 여류'로 인정받는 안정화된 길을 거부하며 지배적인 젠더 체계를 교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 3. 민중주의에 대한 반복된 복종, '소주파'여성의 주체화 전략

고정희가 민중적 관점에서 당대의 지배 권력을 비판하는 시들을 많이

---

13) 조안 스콧,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 배은경 역, 『여성과 사회』 13, 한국여성연구소, 2001, 219쪽.

14) “나는 자신에게 질박한 것을 써야 그것이 시라고 생각한다. 창조 에너지에는 무슨 남성 여성의 구별이 있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여성신문』 대담; 박혜란, 앞의 글, 61쪽에서 재인용.)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대항세력을 차지했던 진보적인 남성 평론가들이 이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여성 작가를 ‘여성성’에 가뒀 보려는 것과 일정 부분 관계된다. 이러한 고정희의 민중주의에 정향된 투쟁적 면모는 서론에서 말했듯 고정희의 페미니즘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시각들에 의해서도 그것이 지나치게 ‘남성적 투쟁’을 상기시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sup>15)</sup> 하지만 낭만적 투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고정희의 ‘정치시’는 ‘여성성’을 거부하려는 몸짓임과 동시에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연단을 마련하려는 수행적 몸짓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각도에서 고정희의 민중주의에 정향된 투쟁적 면모 내지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지니고 한국 사회를 향해 행해진 시적 발화들은 보다 복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고정희는 분명히 당대의 지배 권력을 비판하는 시들을 썼다. 조연정은 “고정희의 시가 여성문제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풍자적으로 당대 현실에 정확하게 개입”하는 “‘정치시’ 혹은 ‘정치비판시’를 쓰고 있”었다고 진단하는데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sup>16)</sup> 그런데 정작 “고정희의 시를 무엇보다도 ‘여성운동’을 위한 공론장

15) 이와 관련하여 김은하가 1980년대 민족, 민중문학과 콜라보를 시도한 여성 문학 연구자/작가들에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부분 역시 여성의 글쓰기 전통이라는 또 다른 규범적 인식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있다는 점에서 재고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민족, 민중문학과 콜라보를 시도한 여성 문학 연구자/작가들은 ‘여류’의 낙인을 떼내지만 마녀나 히스테리 환자로서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어 온 여성의 글쓰기 전통과 결별하며, 소수자로서 여성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도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21쪽. 그러나 필자는 민족, 민중문학이라는 대의를 해체하지 못하고 이에 호응한 여성 문학 연구자/작가들에 대해서 보다 복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본다. 남성중심적 언어를 단순히 답습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보다 그 수행의 양상과 균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16) 조연정의 연구는 여성 작가들이 문학장 안에서 예술적 시민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과소여성화’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여성운동과 민중문학의 접점으로 고정희의 문학적 활동에 대한 시론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데, 고정희가 “여성을 그 자체로 민중으로 상정하는 것”이며 “1990

으로서의 역할을 시도한 것"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고정희의 민중주의에 정향된 투쟁적 면모 역시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접근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중요한 입장인데, 이러한 접근을 통해 고정희가 왜 충돌할 수 있는 두 지향을 동시에 추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고정희가 본격적으로 여성주의를 접하게 된 시기는 '또 하나의 문화' 동인 활동을 시작한 1984년 이후부터이며 이러한 활동과 함께 여성주의적 지향을 지닌 시가 1980년대 중후반이후부터 창작되었다. 그런데 고정희는 여성주의적 문화활동을 병행하며 이와 동시에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시들 역시 창작했다. 이 장을 통해 고정희의 다섯 번째 시집 『눈물꽃』(실천문학사, 1986)에 실린 시들을 중심으로 고정희가 당대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떠한 시적 담론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7)</sup> 『눈물꽃』의 후기에 밝혀지듯이 고정희에게 “정치현실과 예술의 혼”은 따로 떼어놓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현실”이라는 렌즈가 곧 꿈의 광택을 깨는 도구”이기도 했다. 실제로 『눈물꽃』에 실린 시들은 정치현실이 주요한 시적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시적 발화를 통해 표출된 고정희의 현실 인식을 규명하고 나아가 고정희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확인해보고 이것이 고정희가 페미니즘을 접근하는 각도를 규정하기도 했음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

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등시민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젠더불평등의 문제를 선취한 것”이라는 이 논의의 결론은 필자의 글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조연정, 『1980년대 문학에서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의 접점: 고정희의 시를 읽기 위한 시론』,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 267~268쪽.

17) 고정희는 『눈물꽃』의 후기에서 “『눈물꽃』의 시편들이 만들어질 동안 나를 가장 강하게 사로잡았던 문제는 우리 시대의 문화적 위기와 지성의 뿌리에 관한 것”이었으며, 자신은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며 정치현실과 예술의 혼을 따로 떼어놓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정희, 『눈물꽃』, 실천문학사, 1986, 후기 참조.

조한혜정은 고정희를 ‘소주파’여성이었다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고정희가 소위 집회 시위의 현장에 있었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었다.<sup>18)</sup> 고정희의 시작(詩作)에서도 이러한 시위의 체험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프라하의 봄<sup>1</sup>』은 ‘광장’에 임해있는 주체가 군부독재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정치적 좌절감과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 시라 할 수 있다.

수유리에/서늘한 산철쭉이 피었다 진 후/무서운 기다림으로/산은 깊어지네/무서운 설렘으로/숲은 피어나네/땀물 든 젊음의 상복으로/아카시아 흰 꽃이 온 산을 뒤덮은 후 뜨겁고 암담한/우리들의 희망 위에/몇 트럭의 페퍼프로그와 최루탄이 뿌려지네/외로운 코뿔소들이 그 위를 행진하네/오 나의 봄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일까//

하늘에 칼을 대는 산바람 속에서 긴긴 봄날, 명까명까/서울의 백성들은 가무를 즐기고/쓸쓸히 목을 꺾은 젊은이의 무덤에/넋을 달래는 진혼제가 울려진 후/나는 생각하네, 친구여/한 나라의 자유를 위한 죽음은/선택이 아니라 복종이기에/간을 적셔 쓴 몇 줄의 시로는 나/구원받지 못하리라 예감하네/더운 목숨의 외로움 탓으로/칼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언어와/끈질긴 목숨의 죄 때문에/훼손으로 부지하는 당대의 문화가/어느 날 꽃이 피긴 피리라는 중도보수주의는/필경 무덤까지 따라와/수세대에 이어질 쇠사슬로 덮일 것이네/오 우리들의 광장엔 광대들뿐이고/누군가의 빈 손이 허공을 휘젓네//

#### 『프라하의 봄 1』의 전체<sup>19)</sup>

18) “나는 한일 회담 결사 반대를 위해 ‘소주파’ 친구들이 스크럼을 짜고 교내를 돌고 있을 때, 책과 여행으로 시간을 보낸 ‘맥주파’ 학생이었다. 그런 내게 여성 운동 집회에서 열나게 주먹을 휘두르며 ‘민중해방’, ‘여성해방’의 노래와 구호를 외치던 그의 모습은 생소하면서 아름다워 보였다.” 조한혜정, 『시인 고정희를 보내며……』, 조형 외, 앞의 책, 232~233쪽.

19) 고정희, 『프라하의 봄 1』, 『눈물꽃』, 실천문학사, 1986, 56~57쪽.



총 15편으로 구성된 연작 중 첫 번째 작품에 해당하는 위의 시는 ‘서울의 봄’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전면화하고 있는 텍스트이다. 1연에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봄이 다시 군홧발에 의해, 정당성이 없는 통치 주체들에 의해 무너진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무서운’이라는 형용사를 통해 ‘설렘’과 ‘기다림’을 수식하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냄으로써 당도한 봄이 짧았음을 표상하고 있다. 이는 이미 ‘서울의 봄’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겪었기에 가능한 사후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2연에서는 이러한 암담한 정치현실 속에서 시를 쓰는 일의 무력함이 비장한 분위기에서 토로된다. 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 죽었던 누군가를 애도하는 가운데 “칼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언어”, “휠질로 부지하는 당대의 문화”를 문제삼고 있다. 당대의 정치 문화를 “어느 날 꽃이 피긴 피리라는 중도보수주의”라 명명하는 가운데 “광장엔 광대들뿐”이라 진술하는데, 이러한 시적 인식은 ‘광장’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영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다름 아니다.

물론 당대 현실을 ‘말의 위기’로 진단한다거나 군부독재 상황으로 인해 주권자가 겪게 되는 좌절감과 상처가 피력되는 것이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한 시적 반응으로서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광장’이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공간이며, 젠더화된 공간이라고 할 때 여성 시인이 당대의 정치현실을 어떤 성별의 표지도 읽을 수 없는 시적 주체를 내세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채로우며 특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행위가 소멸되었다는 진단을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말’을 할 자격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여성 시인이 낭만적 투사의 목소리를 출현시킴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정희는 “공적” 혹은 “정치적” 영역, 공론의 역할과 정치적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한 시인이었다. 고정희가 소위 사회의식 내지 역사의식이 강한 시를 쓴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시를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소통공간으로 여긴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지식인’과 ‘시민’의 외연이 젠더화되어 있었고 정치적 ‘광장’이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고정희의 모습은 여성을 시민의 바깥에 위치시키는 것에 대한 일정한 저항성을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장만을 놓고 보았을 때도 공론을 제기하고 누군가를 평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것은 주로 남성 문인, 남성 주체였다. 서은주가 밝히고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세계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고 표상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지식인의 자리는 남성 주체에 의해서 독점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은주는 사회적으로 남성이식인들의 지식인론이 크게 공명된 것에 반해,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에 대한 담론적·문화적 재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왔는데, 이것은 여성의 지성에 대한 불신이 사회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과는 관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담론장 혹은 문학적 형상화에 있어 ‘지식인’이라는 자리를 남성이 독점한 영역이라고 까지 주장한다.<sup>20)</sup> 필자 역시 이러한 지적과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본고의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 시기인 1980년대는 물론 서은주의 논의가 대상으로 삼는 시기와 시차가 있으며 여성지식인들이 여성해방을 표방한 『또 하나의 문화』, 『여성』 등의 무크지를 만들 정도로 어느 정도 범주화되고 가시화된 시기이지만 그러한 주체화 역시 ‘지성’을 포함한 여성의 역량에 대한 인정의 부정의를 이러한 무크지 운동의 등장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1980년대까지 어느 정도 연속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고정희가 ‘민중’이라는 기표를 통해 제기하는 시적 담론은 ‘민중’담론을 중심으로 편성된 대항공론장에서 ‘여성’ 역시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던 것으로 일차적으로 평가할 수

20) ‘비판적 지성’에 대한 젠더링의 문제를 다룬 서은주의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지성’이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서은주는 한국의 담론장 혹은 문학장에서 여성의 ‘지성’은 괘호쳐진 상태에서 재현되어 왔으며, 그 결과 “여성의 젠더 정체성 안에서 지성의 항목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범주가 교차하는 문제적 접점의 재현을, 주로 남성 주체가 독점해 왔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깊다.”고 밝히고 있다. 서은주, 『비판적 지성과 젠더, 그 재현의 문제-박순녀의 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68~70쪽.

있다. 이는 민중에 대한 부정의뿐만 아니라 ‘시민’이 되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인정의 부정을 공략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텍스트 바깥의 문학장 그리고 ‘인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여성 시인이 당대 대항담론에서 지배적인 언어로 군림했던 민주주의라는 지배언어로 시를 쓸 때 빚어질 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민중 담론은 1970~1980년대 한국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문학, 역사학, 사회학, 신학 등 진보적인 학술운동에 의해서 제기되어, ‘민중’이라는 기표는 대항공론장에서 중심이 되었던 하나의 누빔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중’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정작 지식인 남성으로 대체로 제한되어 있었다. 1984년 한국신학연구소에서 펴낸 『한국민중론』은 ‘민중’에 대한 논의가 분과를 막론하고 지식인 남성의 전유물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책에는 문학, 사학, 사회학,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민중’에 대해서 펼친 논의를 망라해서 실고 있는데 필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이는 ‘지성’과 ‘공론’을 누가 주로 점유해 왔는지를 방증한다. 남성 지식인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 민중론에서 ‘민중’의 외연은 불명확하지만, 느슨한 규정에 따르면 ‘민중’이 억압받고 지배를 당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 주체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지향적 의미가 투사되고 있었다. 이러한 투사의 원인이 여러 글들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1970~80년대 진보적 지식인들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시민혁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sup>21)</sup> 지

21)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글로 백낙청의 『민중은 누구인가』(『뿌리깊은 나무』, 1979년 4월호)를 들 수 있다. 이 글 역시 『한국민중론』(한국신학연구소 편, 1984)에 수록되었다. 백낙청은 이 글을 통해 ‘인민주권’사상이 대두된 이후에도 민중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언급한 후 지배자의 논리가 훨씬 교묘해지고 위장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는 고전적인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선진 복지국가, 사회주의 국가 역시 마찬가지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시민혁명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단계라는 발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시민혁명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단계에서 시민혁명 뒤에 돌아난 온갖 위장된 지배자의 논리를 되뇌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식인 남성들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이러한 미완의 ‘시민혁명’이라는 문제는 역사의 주체 세력으로 ‘민중’을 호명하게 만들었으며, ‘민중’담론을 대항적 공론장에서 헤게모니적 권력을 지닌 도덕적 특권 담론으로 만들었다.<sup>22)</sup>

고정희 역시 분명 당대 공론장에서 지배적인 대항 담론으로서의 권위를 누리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공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정희의 세 번째 시집 『이 시대의 아벨』에 실린 일부의 시편들은 고정희가 주로 신학을 중심으로 한 민중론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3)</sup> 고정희가 민중론을 직접적으로 밝힌 글 역시 존재하는데 고정희는 『새롭게 뿌리내리는 기독교문화를 위하여』에서 참된 민주적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피력하며,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 ‘민중’이라는 이념체계를 강조한다. 이때 ‘민중’은 신분이나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자리”, “신념의 방향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라는 차원에서 그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sup>24)</sup>

이러한 가치지향으로서의 민중론은 남성 지식인들이 제기했던 민중론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공론’을 제기하고 주장하는

는 말아야겠다는 것이다.” 백낙청, 『민중은 누구인가』, 한국신학연구소 편, 『한국 민중론』, 한국신학연구소, 1984, 16~17쪽.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백낙청의 두 번째 평론집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시인사, 1979)에 실리기도 했다.

22) ‘민중’ 담론이 대항공론장에서 지니는 헤게모니적 권력에 대해서는 이남희의 연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남희, 『민중 만들기』, 유리·이경희 역, 후마니타스, 2015, 247~298쪽.

23) 고정희의 시가 민중신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승구(2007), 이소희(2013)의 논의가 잘 보여주고 있다. 김승구는 고정희의 한국신학대학 체함과 관계된 시들을 주로 분석하며 민중신학적 논리가 그의 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임을 논급하고 있다. 김승구, 『고정희 초기시의 민중신학적 인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249~275쪽. 한편 이소희는 고정희의 시집 『광주의 눈물비』에 실린 ‘암하레즈’시편을 거론하며 고정희의 민중개념이 민중신학적 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소희, 앞의 글, 307~308쪽.

24) 고정희, 『새롭게 뿌리내리는 기독교문화를 위하여』, 『예수와 민중과 사랑 그리고 詩』, 기민사, 1985, 9쪽.

자리에 그 자신, 여성 시인이 놓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고정희가 말하는 결단의 자리, 즉 ‘민중’이라는 자리에 ‘여성’이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서 생겨난다. 민중주의가 대항적 공론장에서 헤게모니적 권력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을 주체화하는 고정희의 발화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자신을 주체화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던 것이다. 고정희가 시작(詩作)을 통해 ‘민중’을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는 존재로 형상화할 때 “가치 체계를 형성해가는 주체세력”의 자리에 놓이는 것은 ‘민중’뿐만 아니라 그러한 민중주의적 시를 쓰고 있는 고정희이기도 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시로 『프라하의 봄·9』을 들 수 있는데, 이 시의 화자는 정희의 아버지로 설정되며 지역적으로 농촌에 있으며 배움이 짧은 아버지가 정치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는 “서울정희”가 청자로 설정되고 있어 자기반영적 특성 역시 지니고 있는 텍스트인데, 이 시를 통해 구현되는 민중의 목소리가 보다 실제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간체리는 형식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독자가 정치적인 내용을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sup>25)</sup>

서울정희반아보거라/(...)니가서울물이들었어도단단히들었는디/요즘  
서울에서보내주는신문하고티비보면/식자층 많다는서울은/왜그리판으로  
돌아간다나/본디글맛이란사람속에든것이오/천륜이다사람에서비롯된  
다하였는디/대학나와만든다는신문하고책하고방송이라는게/일이던도아  
니고지난십수년동안/성실하다성실하게거짓말을참말인양/경콩짓어대는  
행동거지하고/판별없다하면꼬리치는것하며또/땀흘리는농사철만돌아오  
면/네꼬따이땀도시양반들/가리개모자쓰고운동장에모여앉아/개보다시끄

25) 고정희는 이후 창작된 ‘이야기 여성사’ 연작에서 이러한 서간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 화자를 내세워 시를 창작했는데, 이러한 특성은 문학사적으로 리얼리즘 시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법이기도 하다는 점을 김진희는 지적하고 있다. 김진희, 『서정의 확장과 시로 쓰는 역사』, 『비교한국학』 1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187쪽.

립게소란떠는모습하며/세상이하수선하게돌아가고있지않느냐/도대체스  
포츠가뿔나오는것이며/쌍팔년이복삼계라도된다는것이다냐/이유없는공  
동묘지없다고는하드라마/배우고발전하고잘산다는게/지않가림하는데아  
무쓸작없다면야/공동묘지달빛과다를게뭘겠느냐/(...)대저네가쓰는시문  
(詩文)이라는것도/한자루낫보다무던것이라면야/흙에씨뿌리고가꾸는일보  
다/땀뿜하지못하니라/그러니이에비말잘들고/생의근본이무엇인지따지기  
바란다(...)

### 「프라하의 봄·9」의 부분<sup>26)</sup>

서울물이 든 딸을 나무라는 아버지의 장황한 뉘드리로 채워진 이 시는 당대의 지배세력이 내세운 발전주의 등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정치비판 시에 해당한다. 스포츠 관람과 올림픽 개최 등의 들뜬 분위기가 비판되지만 무엇보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짓말을참말인양/경경짓어대는” 언론의 현실이다. “서울양반들”이 “보신탕집귀신들에썩은것아니냐”는 조롱이 이어지며 ‘말의 위기’라는 차원에서 당대 사회의 부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이 ‘시민’으로 태어나는 자리가 고정희가 쓴 시가 됨으로써, 고정희는 소외된 정치권력의 위상을 지닌 ‘민중’과 ‘여성’ 모두를 주체세력이라는 자리에 놓고 있다.

한편 이 시에서 등장하는 민중의 모습은 한완상이 논의한 ‘대자적’민중의 모습에 가까운데, 이 역시 시민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sup>27)</sup> 이러

26) 고정희, 『프라하의 봄·9』, 『눈물꽃』, 실천문학사, 1986, 77~80쪽.

27) 김진우는 한완상의 민중사회학이 정초된 배경에는 한신의 민중신학과 ‘하나님의 선교’론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그의 『민중사회학 서설』의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완상은 민중을 ‘즉자적 민중’과 ‘대자적 민중’으로 구분했으며, ‘대자적 민중’은 다시 ‘자의식의 민중’‘비판적 민중’‘행동하는 민중’으로 단계화된다고 한다. 그리고 즉자적 민중이 대자적 민중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지식인’이라는 것이다. 민중과 마찬가지로 지식인 역시 사회집단이나 계급의 범주로 환원되지 않으며 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한완상의 논의의 골자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편’인데, 지식인이 민중의 편에 서게 되면 민중이 되는 것이고 지배집단의 편에 서게 되면 ‘개’가 되는 것이다.” 김진우, 『한국 현대지성사에서 ‘한신’이 가

한 민중의 모습은 실체라기보다 지식인의 관념 내지 일종의 가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김주연에 따르면 ‘민중’은 선택과 가치의 개념인데, 그 실체를 대중의 일부에서 취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지식인의 관념-올바른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자기 반성-의 그림자”라는 것이다.<sup>28)</sup> 이 말을 뒤집어서 고정희에게 적용해보면 ‘고정희 역시 (비판적) 지식인이다.’라는 명제가 가능해진다. 민중이라는 표상을 통해 어떤 시적 담화를 전개하고 있는 고정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민중의 기의가 아니라, 여성 지식인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다. 민중주의라는 지배담론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의미화의 가능성은 이러한 반복된 복종 속에서 생겨나고 있었다.<sup>29)</sup>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이상적으로 여겨진 민중주의라는 정치적 신념을 과도하게 모방하는 듯 보이는 고정희의 이러한 면모는 ‘패러디적 정체성’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sup>30)</sup> 물론 이러한 ‘패러디’ 혹은 ‘모방’은 원본 개념을 조롱하는 것이라 볼 순 없고, 대체로 공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행해진다. 하지만 그것이 생산되고 구성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화’가 이루어진다. 고정희의 민중주의적 발화들은 남성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민중주의를 모방함으로써 어떻게 지식인이라는 자리가 구성되고 그리고 생산되는지를 보여준다. 당대 대항담론에서 헤게모니적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민중주의라는 남성 언어를 수행함으로써 인정과 동시

지는 의미],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520~522쪽.

28) 김주연, 『민중과 대중』, 한국신학연구소 편, 『한국민중론』, 한국신학연구소, 1984, 38쪽. 같은 제목으로 김주연의 평론집 『대중문학과 민중문학』(민음사, 1980)에 실린 글이기도 하다.

29)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주체는 제도나 규범에 복종을 하더라도 완전한 복종이 불가능하며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복적인 수행은 규범과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동시에 그것이 새 의미를 열릴 미시적 가능성이기도 하다. 그것이 반복을 통한 제도 규범의 수행이 가져올 전복성이다.”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현암사, 2014, 43쪽.

30) 조현준에 따르면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패러디’ 개념은 “패러디적 정체성이 모방하는 본질로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본 개념 자체가 이미 선험적인 본질이 아니라 제도 문화의 이차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위의 책, 40쪽.

에 전복을 꺾고 있는 것이다. 정치와 공론의 영역이 더 이상 남성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고정희의 글쓰기는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고정희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방은 민중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 아니라 균열을 초래하고 있기도 했다. 역사를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소위 하위주체라 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는 시편을 쓴 것인데, 고정희는 성별화된 민족주의의 문제를 드러내며 여성이 남성과 '주권'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획을 공유할 수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20년 동안 무심히 까발려진 한강에서/사내들은 모래에 삽질을 하고/  
사대문 안에서는/허울좋은 보드들이/시골 풍년잔치와 놀아나는 시월/어  
인 일인가/조선국 충렬왕조에 공출나갔던/고려 여자들이 돌아오네/앞산  
뒷산 풀밭에/흰 들국향으로 돌아오네/다리 후들거리며 떠나갔던 여자  
들/회회아비와 살을 섞고/청국인과 피를 섞고/오랑캐와 닳을 섞어/조선  
국 사대부 밥줄 지킨 여자들/황천국 하늘이나 떠도는 줄 알았더니/저것  
봐라……/으드드득 주저앉은 무릎뼈 흔들며/들국 산국 향으로 돌아오네/  
청천벼락 때리며 돌아오네//

돌아오네/돌/아/오/네/일제치하 끌려갔던 정신대 여자들/이씨조선 여  
자들이 돌아오네/가슴 벌터거리며 실려갔던 여자들/혀 깨물고 죽을 자유  
도 없이/토오쿄오와 큐우슈와 고오베로 흩어져/멕시코와 필리핀과 브라  
질로 흩어져/요강방석이 되고 더러는/희감이 되고 더러는……/일본이노  
좋아데스/조선이노 마라데스/친일이노 매국노 재산 지킨 여자들/구원의  
강물로나 사라진 줄 알았더니/이 어인 일인가/우두두둑 바스러진 우곡지  
조 흔들며/개망초 들망초 꽃으로 돌아오네/달빛 스산한 한강물 밟으며/  
천재지면 테불고 돌아오네//

(…)

해동천 공화국에 사는 여자들/달러박스 낚시질 밥으로 떠나가네/기생  
관광 산업관광 버들피리 되어/빨닐리리 빨닐리리 보리피리 되어/하이,



하이, 마이 달링/심심산천 도라지꽃으로 옷다가/다국적 기업의 똥물로  
 흐르다가/이 강 산 낙화유수……./사계절이 아름다운 나라/해동천 공화국  
 에 사는 여자들/두당 1백 30만 원, 팔려가네/한겨레 한가지로 팔려가네

**『현대사연구·14-가을 하늘에 푸르게 푸르게 흘러가는 조선  
 여자들이여』의 부분<sup>31)</sup>**

고정희의 ‘현대사 연구’연작 중 마지막 시에 해당하는 『현대사 연구·14-가을 하늘에 푸르게 푸르게 흘러가는 조선 여자들이여』는 한국의 성장과 발전의 그늘에 놓여있는 것으로 다리를 후들거리며 떠나간 여성을 제시한다. “조선국 충렬왕조에 공출나갔던 고려 여자”, “일제치하 끌려갔던 정신대 여자들”, “기생관광 산업관광“에 동원된 여자들, “달러박스 낚시질 밥”으로 떠나는 여자들을 역사와 사회 구조의 상황이 반영된 하층 범주로, 하위 주체로 가시화하고 있는 시인 것이다. 이러한 가시화를 통해서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여성이 주권적 위기에 빠진 역사적 상황에서 성적으로 동원된 사실 그 자체이다. 하지만 그보다 문제적으로 다루는 것은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고정희는 우선 가부장적 정조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던 한국 사회에서 민족 남성의 수치와 오욕으로만 기억되었던 고려 공녀, 위안부, 양공주의 문제를 여성에 대한 성적 동원의 문제로 의미화하고 있다. 이는 민족적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 주체성, 주권의 위기를 여성에 대한 외세의 성폭력을 통해 드러내는 남성적 방식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이 시가 무엇보다 문제 삼는 것은 여성의 경험을 침묵시키는 구조, 당대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문제삼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조선국 사대부 밥줄 지킨 여자들” “친일이노 매국노 재산 지킨 여자들”이라는 과잉된 시적 진술들을 통해 전도시켜 의미화하며 기존의 인식을 뒤집으려하는 것이다.

31) 고정희, 『현대사 연구·14-가을 하늘에 푸르게 푸르게 흘러가는 조선 여자들이여』, 『눈물꽃』, 실천문학사, 1986, 136~139쪽.

여성들이 돌아오는 상황을 그린다는 것은 실상 여성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인식을 반어적으로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돌아오네”라는 동사가 시적 진술로서 반복되는 것은 당대 한국 사회의 침묵과 방관 속에 이러한 하위 주체 여성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가시화된 상황 속에서 3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은 또다시 ‘두당 1백 30만 원’에 팔려가는 상황을 맞는다는 것을 “팔려가네”라는 동사의 반복을 통해서도 보여준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이 지적했듯이 이 시가 발표된 1980년대 중반까지 ‘위안부’는 사회적 타자로 방치되었던 존재들이었다. 여성의 정조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으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주로 침해당한 정조의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sup>32)</sup> 이러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문제삼는 고정희의 ‘정치’시는 남성중심적 대문자 담론, 즉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초과하며 침묵된 하위주체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려했다는 측면에서 ‘정치’를 새로운 방향에서 구축하는 성격 역시 띠고 있었다. 고려 공녀와 위안부, 양공주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태도를 문제로 삼으며 이 문제의 공통적 맥락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고정희의 이러한 시선은 여성에게 ‘주권’이 가지는 의미가 남성 주체와 다르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도 하다. 여성을 성적 동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청산하기는커녕 반복하는 한 여성이 공화국의 시민일 수 있는 가능성은 묘연함을 “해동천 공화국에 사는 여자들”이 여전히 팔려나가는 상황으로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 역시 “해동천 공화국”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와 민족 속에서 남성과 같은 성원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동반하고 있다. 고정희는 ‘현대사 연구’연작의 마지막인 이 시에 남성중심의 대문자 역사 내지 담론에서 억압하거나 감췄던 지점을 기입하고 폭로함으로써 여성의 경험과 역사가 민족 남성

32) 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 『사회와 역사』 60, 한국사회사학회, 2001, 61쪽.

중심의 역사 내지 담론으로 봉합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여성이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주권을 잃은 그리고 주권을 다시 찾은 이후에도 겪었던 비(非)시민 혹은 2등시민적 상황, 여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침묵된 상황은 고정희가 여성을 소외된 정치권력과 위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인다.

고정희는 문학장 안에서 예술적 시민권이 불평등하게 보장되는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그것이 여전히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여성의 2등 시민됨을 절감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고정희는 여성 역시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여성을 시민의 반열에 올려놓으려 노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시작을 통해 전개된 여성의 시민권을 둘러싼 고정희의 투쟁은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여성이 지닌 ‘차이’를 아예 무시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그것만을 강조하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점에서 갈등과 모순을 나타내고 있었다. 개인성의 모델을 인간(Man)(남성 시민)에서 찾는 ‘여성의 인간화’에서 고정희 역시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정희의 면모는 1970~80년대 지성사적 맥락<sup>33)</sup>과 그것과 연동된 한국의 사회운동 그리고 일부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관계되는 것이기도 했다.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한 것을 위기로 감지하고 ‘의식화’를 통한 역량 증진을 중시하는 것은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주창한 ‘인간화’담론과 접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인혜가 지적했듯이 ‘인간화’라는 프레임은 한국의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의 구체적 방향성을 규정했을 뿐만 아

33) 김건우는 이를 ‘한신적 맥락’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김건우는 1960~7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하나의 축을 담당한 김재준, 문익환, 강원룡, 안병무 등의 지식인그룹의 외연을 지칭하기 위해서 ‘한신’계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 한신계열은 단순히 제도사적 시각에서 한신대 신학 교수를 지칭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만든 강원룡을 빼놓고는 이들의 활동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느슨한 규정을 위해서 ‘한신’이라는 용어를, “김재준의 활동(은진중학교 교목, 한신대 학장, 『기독교사상』 주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큰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건우, 앞의 글, 502~503쪽.

나라 주체 형성의 요인을 제공하기도 했다.<sup>34)</sup> 고정희 역시 인간화 담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고정희는 ‘정치시’ ‘정치비판시’를 활발히 쓰던 이 시기에 ‘인간화’를 주창한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출판간사를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희가 1970년대 후반 한신대 재학 시절 수학한 민중신학 역시 ‘인간화’ 담론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필자가 보기에 아카데미의 ‘인간화’ 담론은 단순히 당대 한국 사회가 안고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추상적 인식을 담고 있는 언설이 아니다. 이는 정치적 차원에서 ‘주권’에 대한 언설이자 인간의 활동 중 ‘행위’에 대한 논리라 판단된다. ‘중간집단육성’이라는 말로 우회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만들기, ‘시민의 덕성’을 기르는 기획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인혜 역시 아카데미의 대화 모임의 참가자들이 “‘인간화’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에게 최소한의 자율성과 정치적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근대화의 문제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한 양극화 중에서도 정치적 양극화를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주목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서는 물론 “군부독재 정권의 정치적 억압에 대한 반작용”도 있었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권리와 근대적 인간관(시민·정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해 숙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5)</sup> 이러한 아카데미의 기획은 ‘정치적인 것’을 고민하는 공화국의 ‘시민’만들기 기획에 다름 아니며 국가와 사회의 공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회의식’을 지닌 ‘주권자’를 육성하려는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

34) 박인혜에 따르면 인간화 담론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대화’모임을 통해 주창된 이래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이러한 담론이 수용되고 확산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의 성장 우선 정책이 펼쳐지는 한국적 상황에서 기독교계 지식인들이 세계적인 신학 사조의 전환에 영향을 받아 한국 사회를 ‘비인간화’ ‘양극화’ 등이 나타나는 사회로 파악하고 ‘인간화’ ‘민주화’ 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 제시한 것이 중간집단의 육성이었는데, 이들은 피억압자를 직접 조직해 저항의 주체로 삼는 대신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매개자로서의 중간집단을 제안한 것이었다. 박인혜, 『여성운동 프레임과 주체의 변화』, 한울아카데미, 2011, 82~91쪽.

35) 앞의 책, 90쪽.

만들기를 위해 아카데미는 중단집단교육을 실제로 실시했고 ‘여성사회 교육’ 역시 그 일환으로 시도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박인혜가 지적하듯이 여성문제가 1970년대 공론장에 등장하게 되며, 아카데미의 중단집단교육성은 여성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데에도 일정한 영향 역시 미치게 된다.

고정희는 이러한 한국 지성계 내지 사회운동의 움직임을 맥락화한다고 했을 때 주목되는 인물임에 분명하다. 일차적으로는 고정희의 삶 자체가 소위 ‘한신적 맥락’이라는 지성사적 맥락과 ‘인간화’프레임이 작동한 사회운동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고정희는 광주YWCA에서 활동했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기독교계 여성 활동가들과 교유한 이력이 있으며 기독교장로회, 즉 한신적 맥락과 늘 접촉되어 있는 인물이었다.<sup>36)</sup> 1984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출판간사를 맡았고 ‘여성사회연구회’출신 인사들과도 교류했던 것을 감안하면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주창한 ‘인간화’담론이 고정희의 사회의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3세계 문제를 신학화하는 모든 노작을 통틀어 해방 신학이라 칭하고 여성 신학을 해방 신학에 포함시키는 사조를 따르다면 **민중운동과 여성 운동은 ‘인간화’의 차원에서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자문해 봅니다.** 안녕. (1985년 6월 23일)<sup>37)</sup> [강조는 인용자]

무엇보다 그녀의 글쓰기, 시작(詩作)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고정희가 시작(詩作)을 통해 ‘여성’을 ‘광장에 선 여성’의 형상으로 재현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아카데미의 ‘인간화’담론에 고정희가 공명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인용한 편지글에서 민중운동과 여성운동은 ‘인간화’

36) 고정희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해서는 이소희(2013)의 논의가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37) 고정희, 『편지2』, 조형 외, 앞의 책, 41~42쪽.

의 차원에서 퀘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고정희의 인식은 이러한 지점에서 더 탐구될 부분을 남기는 것이다. 이 때 ‘인간화’의 모델이 된 ‘인간’은 무엇이고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고정희가 민중운동과 여성운동을 대타항으로 설정하지 않고 퀘를 같이한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고정희가 민중운동과 여성운동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이 갖는 차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고정희가 여성운동을 접근하는 각도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 글은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것이다.

#### 4. 역사적 주체로서의 ‘여성’과 ‘여성’의 시민화

고정희가 광장에 선 여성의 형상으로 여성을 주로 재현한 것은 어떤 사회문화적 조건과 지성사·운동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맥락으로 우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2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문학장 안팎에서 여성의 역할을 협소하게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을 고정희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실에 편재해 있는 ‘여성성’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인간Man’이기를 요구하는 모습으로 고정희는 페미니즘을 수행했던 것이다.

여성은 “인간Man의 권리를 요구하는” 소외된 정치권력의 위치와 위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안 스콧이 지적한 페미니즘이 처한 역설이기도 하다. 조안 스콧은 “페미니즘을 생산했던 정치적 담론”에는 “모순적 징후”가 내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페미니즘 역사가 역설의 역사인 이유는, 근대 서구의 페미니즘이 역사적으로 개인성과 남성성을 동등하게 여겨 온 민주주의 정치의 담론적 실천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sup>38)</sup> 고정희 역시도 진정한 자기표현과 자기실현을 중시했던 것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이 우선은 ‘자기’, 즉 개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문학장 안에서 여성 작가는 추상적 개인으로도 존재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못했던 여성이 “남성임을 상상하는 여성”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페미니즘이 처한 “지속적이며 (그리고 본질적인) 딜레마”였으며 이러한 모순은 여성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sup>39)</sup> 문학장 안에서 여성이 예술적 시민권을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고정희의 문제의식은 역설적으로 ‘여성’이라는 범주를 필요로 하며 인간Man의 권리를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역설을 이해해야 고정희가 왜 여성을 ‘광장에 선 여성’의 형상으로 재현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이유와 조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정희의 이러한 면모는 여성이 ‘개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반발하는 움직임이라는 근대 페미니즘 담론 자체가 내장한 모순과 역설적 지점으로만 파악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조건 중 하나는 3장의 말미에 제시했듯이 ‘인간화’담론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모는 고정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아카데미와의 친연성 속에서 ‘여성사회교육’을 받고 여성운동의 주체로 성장한 ‘진보적’지식인여성 그룹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했다. “인간화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성이 의식화되어 노력하면 “세상을 밝히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은 것이다.<sup>40)</sup> 1976년 창립된 여성사회연구회는 아카데미의 여성교육 이수자 중 “지식인여성이 중심이 되어 동문 형식으로 만든 모임이었으며 한국여성학회와 『여성신문』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sup>41)</sup> 고정희가 아카데미의 여성사회교육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존재하진 않지만, 1984년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출판간사를 맡았고 1988년 창립된 『여성신문』의 초대주간이 되었음을 감안하면 아카데미가 주창한 ‘인간화’담론에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38) 조안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공임순 외 역, 엘피, 2017, 56쪽.

39) 위의 책, 82쪽.

40) 한명숙, 『크리스찬 아카데미 20년과 여성운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민주사회를 위한 대화운동-한국 아카데미 총서 12』, 문학예술사, 1985, 392~403쪽.

41) 박인혜, 앞의 책, 117쪽.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2)</sup>

고정희는 이러한 맥락들을 거느리면서 ‘광장에 선 여성’의 형상으로 ‘여성’을 재현하는 면모를 보여주는 일련의 시들을 창작했는데, 이러한 작업이 주로 역사적 사실을 경유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사 연구’ 연작과 ‘광주항쟁’에서 여성의 역할을 조명한 르포 등이 고정희의 이러한 지점을 잘 보여준다. 장르는 다르지만 ‘여성사’적인 작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이 텍스트들에서 고정희는 여성을 ‘광장에 선 여성’의 형상으로 ‘시민’으로 재현하려고 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상징적 폭력의 문제가 결국 여성의 소외된 정치권력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라 파악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고정희는 여성이 규정하기보다 규정당하는 타자의 위치임을 문학장 안팎에서 자주 목도하면서 주권적 주체가 되는 것이 여성에게 필요함을 절감했을 것이며, 이러한 ‘주권적 주체’임이 부정당하는 문제가 여성이 ‘2등 시민’인 것과도 긴밀히 관련을 지닌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 소외된 정치권력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역사적 주체화, ‘시민화’가 떠오르는 것이다. 고정희에게 ‘여성해방’은 ‘주권’과 ‘시민권’의 문제로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작(詩作)에서도 이것이 반영되고 있다.

우리는 조선의 여자로 태어나/학문과 나라일에 종사치 못하고/다만  
방직과 가사에 골몰하여/사람의 의무를 알지 못하옵더니(...)//기우는 나  
라의 빛을 갓고 보면/풍전등화 같은 국권회복 물론이요/여권의 재앙 말  
끔히 거둬내고/우리 여자의 힘 세상에 전파하여/남녀동권을 찾을 것이니  
/대한의 여성들이여,/반만년 기다려온 이 자유의 행진에/삼중지덕의 가

42) 다음의 자료를 통해 고정희와 함께 또 하나의 문화 동인으로 활동했던 조옥라와 조한혜정, 조형 등이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실시했던 대화모임에 참가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 전통문화와 여성(1983.4.15.~16)’이라는 모임에서 조혜정은 『전통과 현대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다. 논평은 조옥라가 맡았고, 조형 역시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10년간(1975~1984) 대화모임 분야별 총목차 및 참가자』, 크리스찬아카데미 편, 앞의 책, 464쪽.



락지 벗어던져/새로운 세상의 징검다리 괴시라

「반지뽑기부인회\* 취지문-여성사연구 2」의 부분<sup>43)</sup>

고정희가 밝힌 원주에 따르면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최초의 여성참여지였던 대구지방 ‘탈환회 취지서’ 원문을 전용”했다고 한 위의 시는 여성이 국가적(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기여를 통해 ‘남녀동권’을 찾고자 한 움직임으로 ‘탈환’을 의미화하고 있다. 이때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위해 반지를 내놓는 일을 “삼중지턱의 가락지”를 벗어던지는 행위로 치환함으로써 역사적 주체가 되는 일과 ‘여성해방’이 동권에 놓일 수 있는 일로 의미화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sup>44)</sup> 이러한 의미화는 고정희만의 의미화만이 아니라 ‘탈환회’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보여준 모습이기도 했다.<sup>45)</sup> 고정희는 민족의 일원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남녀동권을 찾으려했던 움직임을 가시화·계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벌에 떠도는 남자현의 혼백 앞에/자유 세상 밝히는 분향을 올리  
시라/그때 그대는 보게 되리라/‘**대한여자독립원**’이라 쓴/아낙의 혈서와  
무명지를 보게 되리라.

밥짓고 빨래하고 유복자나 키우다가/딱 깨친 바 있어/안동땅에 자자

43) 고정희, 『반지뽑기부인회 취지문-여성사연구 2』, 또 하나의 문화 편, 『여성해방의 문학』(또 하나의 문화 3), 평민사, 1987, 57쪽.

44) 고정희는 『대한 매일신보』 1907.4.22.일자 잡보를 참조했다고 하는데, ‘탈환회 취지서’는 1907.4.23.일자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45) ‘탈환회 취지서’에서 이러한 측면을 잘 확인할 수 있다. “반지 한 쌍에 2원씩만 해도 1000만 원이 여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것은 춥고 배고픈 것과는 상관이 없고 다만 손가락을 속박할 뿐이다. 여인들이 아끼는 것이긴 하지만 자녀에 비할 바이겠는가. 우리나라의 수백 년 풍습에 이렇게 쓸모 없는 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는데, 오늘날 이 중대한 일을 성취하려고 예비한 것임을 알겠다. 이렇게 국채를 갚고 보면 국권만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 여자들이 한 일이 세상에 전파되어 남녀의 동등권을 찾을 것이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3일, ‘우리역사넷’웹DB의 현대국어역 버전 참조.

한/효부 열녀 쇠사슬에 찬물을 끼얹고/여필중부 오랏줄을 싹둑 끊으니/  
서로군정독립단 일원이 되니라.

『남자현의 무명지-여성사연구 3』의 부분<sup>46)</sup> [강조는 인용자]

위에서 인용한 『남자현의 무명지』는 이러한 계보화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시인의 재의미화가 보다 강화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고정희는 위 시에서 여성독립운동가인 남자현이 쓴 ‘조선독립원’을 ‘대한여자독립원’으로 환치시킴으로써 ‘독립운동가’였던 여성이 페미니스트적인 각성이 있었던 것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고정희의 이러한 시적 진술들은 ‘독립운동’과 ‘여성운동’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는 여성의 정체성이 지녔을지도 모르는 페미니스트적인 각성의 가능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조선독립’이라는 말이 지닌 보편주의의 불완전성 역시 폭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정희의 이러한 환치의 상상력은 프랑스혁명기에 드 구즈가 여성을 비껴간 시민의 권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을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1791)으로 환치시켜 출간하며 보편주의의 불완전성을 폭로한 시도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sup>47)</sup> 남자현을 조선의 독립을 원했던 여자이라기보다 여자의 독립을 원했던 여성으로 재현하려는 고정희의 모습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광장에 선 여성’, 역사의식을 지닌 여성이 단순히 ‘대의’에만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지점이 있으며, 특히 페

46) 고정희, 『남자현의 무명지-여성사연구 3』, 또 하나의 문화 편, 『여성해방의 문학』 (또 하나의 문화 3), 평민사, 1987, 58~59쪽.

47) 드 구즈는 선언에서 ‘인간Man’이라는 한 단어를 ‘여성과 남성’이라는 어구로 바꾸고 있다. 환치의 의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희와 드 구즈 모두 여성이 연단에 올라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펼치는 것을 지향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드 구즈는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안 스콧, 앞의 책, 121쪽.

미니스트적인 각성이 있었던 것으로 고정희에게 이해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을 조명하고 있는 고정희의 이러한 면모는 고정희가 페미니즘을 접근하는 각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연작시 ‘여성사연구’보다 뒤에 행해진 ‘광주항쟁’과 관련한 르포 작업에서는 ‘광주항쟁’에 참여한 여성들을 특별히 페미니스트적인 각성이 있었던 것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사적 작업에서 여전히 역설되었던 것은 여성 역시 사회의식을 지니고 불의에 항거했으며 국가 사회의 주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르포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에서 고정희는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광주에서 여성들이 “조직의 일원으로 동참하여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 5월 14일 전남대 정문에서 시도된 가두진출에서 “여학생들은 여러 가지 유인물과 성명서를 만드는 작업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거리거리마다 물려드는 수천여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낭랑한 목소리를 각종 성명서를 낭독하는 데 큰몫을 했다.”는 것이다.<sup>48)</sup> 한편 항쟁이 지속될수록 학생이 아닌 일반 남녀시민이, 전계층이 시위에 합세한 양상을 보여줬는데 가두방송원 전옥주와 광주지역 간호원들의 활약 등이 조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 전역의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조직 아닌 조직활동에 들어갔”음을 진술하는데 시위대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 역시 했음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도로주변 상점이나 주택가 여성들은 커다란 물통이나 세수대야 등에 물을 가득 채워서 밖으로 내놓았고 리어카와 자전거 또는 함지로 지하상가와 공사장 주변에서 돌과 자갈을 실어 날랐으며 다른 편이 주부들과 요식업소 여종업원들은 손에 손마다 물수건과 치약을 준비하여 시위대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최루탄에 눈물 흘리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48) 고정희,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월간중앙』, 1988년 5월호, 404쪽.

했다. 또한 시내 전역에서 시위대를 위한 음료수가 공급되고 빵과 주먹밥 등 요거거리가 날라지기 시작했다.<sup>49)</sup>

위의 인용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희는 여성이 ‘남성성’보다는 기존의 ‘여성성’으로 할당된 것에 충실한 방식으로 항쟁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 역시 그리고 있다. 이러한 고정희의 면모는 “능동적 시민성을 남성성과 동일시하는 지배적인 경향”을 반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50)</sup> 여성을 역사적 주체로 혹은 시민으로 만드려는 고정희의 페미니즘 기획에는 이처럼 동일성과 차이의 문제에 대한 균열을 동반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현은 모두 여성을 비껴간 시민의 권리를 탈환하기 위함이라는 동일한 목표하에서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일성을 강조하던 여성만의 미덕을 강조하든, 참된 민주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여성이 기여했으며 지분을 가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지녔던 것이다.

하지만 고정희의 이러한 면모가 지닌 한계 역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여성을 ‘시민’으로 주로 재현하려고 한 고정희의 이러한 면모는 여성이 진정 성취해야 하는 주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국가와 사회의 주권자로서 노력하는 모습이 강조되어야만 여성이 추상적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일정 부분 함정이 있는 것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주권은 자기자신에 대한 주권이 아니었을까. 남성중심적으로 구조화된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억압은 여성이 단순히 주권자로 인정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성이 공적, 정치적 영역에서 능동적 행위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젠더 문제는 말해줄 수 없었다. 소위 ‘민족민주운동’의 대의를 따르는 여성들이 젠더 문제를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운동사회의 가부장성으로 인한 억압에 노출되어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여성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권자가 되는 것과 여

49) 위의 글, 410쪽.

50) 조안 스콧, 앞의 책, 102쪽.

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지니는 것은 다른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물론 고정희의 이러한 한계는 고정희 개인으로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1980년대 변혁운동을 놓고 볼 때 소위 진보적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진보적 여성운동론에 선구적 역할을 한 이효재의 논의로 거슬러 가서 그 한계가 함께 다뤄질 수 있는 것이다.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운동의 방향을 정립한 여성 주체들은 '민족민주운동'의 부문 운동 중 하나로 그들과 한 대열을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사적 과제를 자기 과제의 하나로 떠안고 갈등보다 연대를 추구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보적 여성운동의 방향성은 "여성운동이나 집단적 노력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여권신장에만 그 참뜻과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효재의 다음과 같은 논의와 조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도 인간이다, 라는 자각 위에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자주적인 시민의 역할을 해야 하며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을 위한 여성운동이나 집단적 노력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여권신장에만 그 참뜻과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데 있다.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부당한 권력층이나 불의한 권력 행사에 대한 끊임없는 민주적 도전이며 인간회복의 기도이다. 그러므로 여성해방 운동도 비인간화하는 불의한 사회 제도, 관습 및 이것을 대표하는 권력층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이것은 남녀 공동의 관심사이며 공동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껏 여성의 의식이나 역할이 너무나 제한된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것을 타파하고 국가 사회의 주권자로서 참여하게 하려는 뜻에서 여성들을 위한 운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 우리에게는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사회 변화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민주화의 요청이 있으며, 이것이 민족 통일로 향하는 의지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한국 여성도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의식하여 이에 동조하는 주역들이 되어야 한다.** 51) [강조는 인용자]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아 써진 이효재의 위의 글은 “국가 사회의 주권자로서 참여하게 하려는 뜻에서 여성들을 위한 운동”이 요구되며, 여성들이 민주화와 민족통일과 같은 “역사적 과제를 의식하여 이에 동조하는 주역들이 되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여성운동이 여성운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발화가 여성운동을 요청하는 여성지식인의 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효재의 생각은 1980년대에 이루어진 논의들에서도 비슷하게 반복 혹은 변주되고 있다. 여성운동이 더 큰 역사적 과제에 통합되어야한다는 이와 같은 이효재의 입장은 진보적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sup>52)</sup> 이효재는 여성에게 역사의식 혹은 사회의식을 지닐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운동을 분리주의가 힘든 방향으로 굴절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고정희는 진보적 여성운동과 입장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문화 동인이었지만, 다른 동인들과 달리 “민중”을 말하며 민족민주운동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시인이기도 했다. 또하나의 문화 동인으로 합류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모습은 고정희에게서 여전히 나타난다. 고정희는 1985년에 쓴 한 편지글에서 “제3세계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차적인 과제요 민주화의 첨단은 분단의 인식과 그 분단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라 언급하며 분단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한국의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것이 주목된다. “이효재 선생님도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이제 한국의 여성운동은 분단된 조국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현실을 어떻게 운동 속에 구체화시키느냐 하는 발전된 국면에 와 있다.”는 것이다.<sup>53)</sup> 이처럼 고정희는 이효재가 제

51) 이효재, 『한국여성과 여권운동』, 『여성의 사회의식』, 평민사, 1978, 11~12쪽.

52) 김영희, 『진보적 여성운동론의 재검토』, 『페미니즘 연구』 2, 한국여성연구소, 2002, 16쪽.

기한 분단 극복을 위한 여성운동론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효재는 분단이라는 현실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분단극복의 과제를 설정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여성운동이 “민주통일운동의 선봉적 역할로 발전”해야 한다는 이효재의 논의는 여성문제가 지니는 구조적 성격을 한국의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판단하려 했던 의도와 관련되었으나, 분단문제를 더 큰 모순으로 여성문제를 부차적 모순으로 위치짓는 위험성 역시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54)</sup> 고정희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지닌 이효재의 논의에 동조하며 더 큰 역사적 과제에 여성운동 역시 참여해야 한다는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노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정희가 또 하나의 문화의 다른 동인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정희의 바로 이러한 면모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된 민주 공동체의 건설에 여성도 기여해야 한다는 고정희의 입장이 사회로부터의 분화와 분리를 피하고 누가 전체와 부분을 정의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55)</sup> 고정희가 ‘대의’를 해체하지 않았던 이상 ‘여성해방’을 외치고 있더라도 여성운동에 분리주의적인 혐

53) 고정희, 『편지3』, 조형 외, 앞의 책, 44~45쪽.

54) “분단시대에 있어서, 여성문제를 여성지위향상만을 요구하는 문제로만 이해할 수 없”으며, 여성으로서 “인간적 삶을 요구하는 주인의식이 분단된 조국의 분열된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주인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제시한 여성이 사회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논의의 구체적 변주 형태이기도 하다. 이효재, 『분단 40년의 여성현실과 여성운동』,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1985, 303쪽.

55) 조한혜정은 여성운동에 분리주의적이라는 혐의를 두며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운동은 기존의 남성 주도적 변혁운동을 지원하는 여부에 따라 두 갈래로 분리되었는데 ‘여성 평우회’와 ‘또 하나의 문화’가 지닌 노선의 차이가 이러한 여성운동 내부의 분화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당시 주류 운동권은 여성운동을 ‘부문 운동’으로 규정하며 부차적 모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선언들을 하고 있었을 때 ‘또 하나의 문화’는 ‘부문’과 ‘전체’를 누가 규정하는지를 되물으며 독자적 노선을 걸어갔다는 것이다. 조한혜정, 『세 번째 편지-여성의 급진성으로 다른 세상 만들기』, 우에노 치즈코 · 조한혜정, 앞의 책, 124~125쪽.

의를 두며 젠더모순을 말하는 움직임에 억압하려했던 남성들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 ‘여성과 주권’을 둘러싼 혼동 내지 전략 사이

이 글은 고정희가 ‘광장에 선 여성’의 형상을 주요한 시적 재현의 대상으로 삼는 면모가 어떠한 맥락과 조건을 거느리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씌어졌다. 여성이 역사적 주체가 되기를 바라는 고정희의 면모는 어떠한 컨텍스트와 결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문학장 안팎에서 존재한 여성 작가에 대한 차별적 문화를 고정희의 경험을 토대로 주로 살펴보았다. 고정희는 창조 에너지에조차 성별 분업이 작동하는 것을 목도하며 이에 대한 반발감을 지녔으며 정치성이 강한 시를 쓰는 것으로 그러한 젠더 체계에 대한 교란을 수행했다. 고정희는 ‘여성’ 역시 공화국의 시민임을 천명하고자 노력했는데, 정치적 ‘행위’를 중시하며 여성이 국가와 사회의 주권자로서 노력한 모습을 시작을 통해 드러내려 했다.

고정희는 그 스스로 ‘광장에 선 여성’으로 살았고, 여성이 주권자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시작(詩作)을 통해 기입하려고 노력했다. 고정희에게는 여성 역시 능동적 시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성의 개인성을 인정받는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다가왔다. 물론 고정희는 1980년대 중후반을 통과해가며 “여자들이 직면했을 성억압 구조”를 찾으려는 급진적 시각 역시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정희는 그러한 시각을 밝히고 있는 시집 『여성해방출사표』의 서문에서조차 “여성해방이 강조되는 곳에 몰역사, 탈정치성이 은폐되어 있다면 이것이 사회변혁운동으로써 총체성을 획득하기엔 너무 빠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sup>56)</sup> 성억압 구

56) “그러나 나는 사회변혁운동과 페미니즘운동 사이에서 나름대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 왔다. 예를 들면 민중의 억압구조에는 민감하면서도 그 민중의 ‘핵심’인 여성민



조를 찾으면서 동시에 사회변혁운동으로써 총체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고정희의 생각은 여성해방을 고민할 때조차 “총체성”, “사회변혁운동”에 복무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정희의 이러한 총체성에 짓눌린 모습은 여성운동이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효재의 논의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 지점에 서있는 것이기도 했다.

고정희를 비롯해 민족민주운동의 대열에 동참했던 여성들에게 사회의 식을 가지는 것이 여성운동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은 여성주의적 입장조차 남성의 승인과 인정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재현하면서 진보적 여성 지식인들이 상상하고 창조하고자한 현실이 여성의 말함 그 자체, 능동적 주체의 자리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운동가를 자처하는 여성마저 여성문제를 독립적으로 사유할 수 없었고, 전체사회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체를 강하게 말해야 여성문제는 말해질 수 있었다. 여성이 전체사회구조를 변혁하는 데에 앞장서는 주체세력이 되는 것을 여성운동으로 혼동한 것은 “자기 몫과 목소리”를 가지기 위함이기도 했다.<sup>57)</sup> 이러한 혼동 내지 전략은 여성에게 일정한 지분을 만들

---

중의 억압구조는 보지 않으려 한다든지, 한편 성억압에는 참여한 논리를 전개하면 서도 ‘민중’이라는 말로 포괄되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억압구조에는 무관심한 듯한 현실 등이 그것이다. (...) 민중의 해방이 강조되는 곳에 몰여성주의가 잠재되어 있다든지, 여성해방이 강조되는 몰역사, 탈정치성이 은폐되어 있다면 이것이 사회변혁운동으로써 총체성을 획득하기엔 너무 뻥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정희, 『서문』, 『여성해방출사표』, 동광출판사, 1990, 5~6쪽.

57) 고정희가 참여하기도 한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문학분과는 무크지 『여성운동과 문학』을 펴내며 “여성들이 한국 사회 구조의 총체적 모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으며 “여성문제는 성모순, 계급모순, 민족모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민족·민중운동과 그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체 사회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민족·민중운동과 함께 호흡하며 여성문제에 접근하고 여성해방문학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민족문학작가회의』출범과 더불어 여성문학분과도 탄생하게 되어 여성해방문학도 민족·민중문학 건설과정에 자기 몫과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무엇보다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발화 역시 대항 공론장 안에서 여성 작가와 지식인이 감행한 인정투쟁과 여성문제에 대한 승인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문학분과위원회, 『책

어쨌든 젠더 문제가 말해질 수 있는 연단을 역설적으로 마련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사회와 맺는 관계가 남성과 다름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여성의 위치를 일깨워준 측면이 있다. 고정희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여성에게 말할 권리는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았고 ‘여성해방’이라는 말 역시 쉽게 연단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고정희 역시 전체 “사회변혁운동”에 접합시켰을 때 “여성해방”을 말하는 것을 가장 안전하게 여겼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사회교육의 간사를 맡았고 유학 이후 1984년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생긴 여성학과의 전임교수로 부임했던 장필화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 여성학의 역사를 회고하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는 여성주의 사상을 가리켜 ‘여성의 인간화’라는 말을 썼죠. 당시 윤후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회적 반발 때문에 차마 ‘여성해방’이란 단어조차 쓰기 힘들었던 때”라고 밝힌 바 있다.<sup>58)</sup> 1970년대 후반의 상황을 가리킨 말이라는 하다. 하지만 이는 ‘여성의 인간화’가 ‘여성해방’이라는 말이 사회적 반발을 낳는 분위기에서 사회에 여성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언어였음을 보여준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고정희는 1984년 이후 ‘또 하나의 문화’동인으로 활동하며 여성주의자로 성장했으며 ‘여성해방’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표명할 수 있었지만 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유력한 언어는 여전히 ‘여성의 인간화’이자 ‘민주주의’에 머무른 것일 수도 있다. 남성임을 상상하는 여성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이러한 보편의 언어에 기대어 변혁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여성을 말하는 것이었다. 고정희에게는 이러한 보편의 언어를 통해 호소하는 것이 여성에게 필요한 주권을 찾아주는 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민주운동과 여성운동의 접점에서 있었던 페미니스트로서의 고정희의 역설적 위상이자 자리였을 것이다.

을 내면서, 『여성운동과 문학』 1, 실천문학사, 1988, 6~7쪽.

58) 『한국 여성학은 수입한 게 아니라 스스로 쌓아올린 주체적 학문』, 『한겨레』, 2014.6.11.

## 참고문헌

### 1. 자료

- 고정희, 『눈물꽃』, 실천문학사, 1986.
- 고정희, 『여성해방출사표』, 동광출판사, 1990.
- 고정희, 『내 삶의 기저로서의 문학』,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문학  
과지성사, 1983.
- 고정희,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 『월간  
중앙』, 1988.5.
- 또 하나의 문화 편,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 평민사, 1986.
- \_\_\_\_\_, 『여성해방의 문학』, 평민사, 1987.
- \_\_\_\_\_,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쓰기』,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2.
-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문학분과위원회, 『여성운동과 문학』 1, 실천문학사,  
1988.
- 크리스찬아카데미 편, 『민주사회를 위한 대화운동-한국 아카데미 총서 12』,  
문학예술사, 1985.
- 『대한매일신보』, 『여성신문』, 『한겨레』

### 2. 단행본

- 박인혜, 『여성운동 프레임과 주체의 변화』, 한울아카데미, 2011, 75~129쪽.
- 이남희, 『민중 만들기』, 유리·이경희 역, 후마니타스, 2015, 247~298쪽.
- 이효재, 『여성의 사회의식』, 평민사, 1978, 11~28쪽.
- \_\_\_\_\_,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1985, 293~304쪽.
-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현암사, 2014, 40, 43쪽.
-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여성해방문학가 고정희의 삶과 글』,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41~45, 232~233쪽.

-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경계에서 말한다』, 사사키 노리코·김찬호 역, 생각의 나무, 2004, 104, 124~125쪽.
- 조안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공임순 외 역, 엘피, 2017, 56, 102, 121쪽.
- 한국신학연구소 편, 『한국민중론』, 한국신학연구소, 1984, 13~39쪽.

### 3. 논문

- 김건우, 「한국 현대지성사에서 ‘한신’이 가지는 의미」,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499~532쪽.
- 김승구, 「고정희 초기시의 민중신학적 인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249~275쪽.
- 김양선, 「486세대 여성의 고정희 문학 체험」, 『비교한국학』 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39~63쪽.
- 김영희, 「진보적 여성운동론의 재검토」, 『페미니즘 연구』 2, 한국여성연구소, 2002, 11~42쪽.
- 김윤식, 「女性和 文學」, 『아시아여성연구』 7,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1968, 95~128쪽.
-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15~49쪽.
- 김진희, 「서정의 확장과 詩로 쓰는 역사」, 『비교한국학』 1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173~200쪽.
- 서은주, 「비판적 지성과 젠더, 그 재현의 문제-박순녀의 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65~99쪽.
- 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 『사회와 역사』 60, 한국사회사학회, 2001, 60~96쪽.
-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쪽.
- 이소희, 「고정희 글쓰기에 나타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 연구 : 80년대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영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221~319쪽.

- 조연정, 「1980년대 문학에서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의 접점: 고정희의 시를 읽기 위한 시론」,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 241~273쪽.
- 조안 스콧, 배은경 역,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 『여성과 사회』 13, 한국여성연구소, 2001, 210~249쪽.

## Abstract

'Women in the square' and right to speak : Gender and Politics of  
Goh Jung-hee's literary activities and writings in 1980's

Kim, Jeong-eun

It is very crucial to cover the implication of the configuration “women in the square” in terms of literature and social movement in the 1980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omplicated implication of “gender and politics” in the social movement occurred in the 1980s and literary field in the course of reading Korean poet Goh Jung-hee’s literary activities and writings. In the course of her debut as a poet and since she became a poet, she was destined to encounter the horizon of expectation on “woman” in the field of literature, especially ideology of “femininity.” The appearance of the female poet with historical awareness disturbed the solid binary gender system in the field of literature.

Goh Jung-hee strived to represent the voices of people by giving voice to people who translated the Korean society at that time into “a crisis of word” and failed to grab the power of speech and interrogating who citizens of the Republic are. However, her works also involved more effects beyond the conformity to the cause that she must write poems on the side of people. The fact that the female poet incapable of becoming as an abstract person conveys political speech affirms that people as well as women are citizens of the Republic.

This paper aimed to explore her female thematical strategi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in that becoming citizens by women is an useful way to gain recognitions for female individuality not simply to remove the difference between the female movement and the popular movement. It can be said that there would be a sort of confusion or certain strategy over “women and sovereignty” based on the idea of recognizing female rights in a way that women have social awareness.

Key words : Goh Jung-hee , ideology of femininity, women in the square, women’s humanization, Christian Academy, gender and politics

■ 본 논문은 2018년 7월 25일에 접수되어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